

한냉기 육추의 비결



김 영 환

<천호부화장 상무>

입추 전 준비 사항

1. 병아리가 도착하기전에 미리 육추사 내부를 천정에서 바닥까지 청소한 다음 소독약을 구석구석까지 철저히 뿌린다.

기구는 뜨거운 물이나 스팀 세척기로 완전히 닦은 다음 소독약을 뿌려 햇볕에 말린다.

특히 전에 사용했던 육추기구에 말라붙은 똥이나 오물은 칼로 긁고 물로 완전히 닦은 다음에 소독약을 뿌려야 효과가 있다. 계사내에 먼지가 하나라도 남아있다면 깨끗한 계사가 될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소독약을 뿌린 물통과 모이통은 사용전에 맑은 물로 다시 한번 씻어 말려 사용한다.

2. 모이그릇 물그릇에는 사료와 더운물을 미리 채워두고 계사온도는 병아리 도착전에 충분히 올려 놓는다.

3. 온도계는 병아리 어깨 높이에 단다. 샷갓 육추기로 육추할때는 온도계 하나는 샷갓 추너 끝에 또 하나는 모이통 부근에 단다. 샷갓안의 온도는 첫주일은 섭씨 32°~35°로 유지해야 하고 그후부터는 매주 2°~3°씩 줄여 6주령 부터는 약 섭씨 21°를 유지하게 한다.

일반적으로 온도가 높으면 병아리는 육추기에서 가급적 멀은 부분으로 물러 입을 벌리고 있으며, 열원온도가 부족하면 난로 주위로 물리고, 적당한 온도일때는 육추기 내외에 고루고루 퍼져서 사지를 펴고 누워있거나 활동한다.

병아리의 우는 소리는 환경조건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환경이 편안하고 모이 물통의 공급이 좋을때는 낮은 목소리로 울고, 추우면 날카로운 목소리로 운다. 배고프거나 목이 마를때는

높은 목소리로 빨리 운다. 온도계 온도를 너무 과신하지 말고 병아리 상태를 세밀히 참작하여 급은하도록 한다.

샷갓밖의 방온도는 섭씨 21도~25도로서 만족하다. 모이통 물통은 샷갓에서 떨어진 곳에 있으므로 방안 온도가 섭씨 21도 이하로 내려가면 난로 주위로 물러 밀사가 되고 충분한 물과 사료를 먹지 못해 병아리가 고루 자라지 못한다.

계사기온이 너무 낮을 때 특히 나쁜 것은 병아리가 필요한 물을 충분히 먹지 못한다는 점이다. 적어도 1주일간은 온도가 낮아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겨울철에는 19공탄 난로보다는 31공탄 난로를 사용하는 것이 완전하고 19공탄 난로들 사용할 경우에는 육추기 주위에 보조 난로가 필요하다.

연탄 난로를 사용할 경우 연탄개스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주의한다. 연통은 지붕높이 뽑아야 하고 연통 바로 아래 부분에 환기창을 두지 않도록 한다. 날씨가 흐리면 연탄개스가 역류(逆流)하여 육추기 안으로 흘러 나오는 경우가 허다 하므로 조심한다.

연탄 개스가 역류하면 병아리의 성장이 대단히 나쁘고 산란계가 되어서도 양계를 울리는 쓸모없는 닭이 많이 생길수 있으며 심지어는 난로 아궁이로 뜨거운 열이나와 난로 주위에 있는 자리것에 불이 붙어 화재를 당하는 실례를 보았다. 또한 연통의 접축이 나쁘면 연탄개스가 나오게 되니 난로에 신문지를 태워 연통 사이로 연기가 나오는 것을 보아 연통을 수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날씨가 심히 춥지 않다면 6주령 이후부터 난로를 서서히 줄여 가면서 한냉단련을 시키는 것도 좋으나 병아리는 심한 기온 변화에 저항력이 없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겨울에는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심하므로 낮에는 충분한 환기를 시키고 병아리가 활동하지 않는 밤에는 연탄을 더욱 많이 피워 온도차이를 없애 주도록 노력한다. 온도차이가 심하면 호흡기질환 발생의 위험성은 더욱 커진다. 병아리가 약할때는 급온기간을 더 연장해 준다.

일반적으로 겨울 병아리는 추위와 짧은 해 길이 때문에 충분한 성장을 못하고 자라게 되며 봄철이 되어 적은 체구에 조산(早産)까지 하여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사 보온을 잘하여 충분한 성장을 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육추면적

4. 직경 5尺짜리 샷갓 육추기로 육추할 때는 300~350마리 수용하는 것이 적당하다. 평면에서는 6주령까지는 평당(坪當) 75마리, 7주령부터 12주령까지는 평당 36마리정도 수용한다.

밀사(密飼)는 절대로 피해야 한다. 성장이 부진하고 고르게 자라지 못하면 폐사율이 많아진다. 카니빌리즘(食羽癖)이 닭무리속에 발생하면 수용 마리수들 기준 마리수에 반(半)으로 줄인다.

모이통과 물통이 중요하다.

모이통과 물통의 모양과 크기는 병아리의 성장과 영양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초생추도 쉽게 먹을수 있도록 고안해야 하고 충분한 사료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여러개를 설치해야 한다.

5. "모이통의 크기"

0-2주령까지-100마리당 길이 1.3m(한쪽에 서만 먹게 된것은 2.5m)

3-6주령-100마리당 길이 2.2m

7~8주령-100마리당 모이통 길이 3.8m

6. "물그릇의 크기"

0-2주령까지-100마리당 25cm 길이의 물그릇(한쪽에서만 먹을수 있도록 만든 것은 50cm) 또는 5홉 들이 물통 3개.

3-10주령까지-100마리당 50cm길이의 긴물그릇 또는 1되들이 물통4개, 큰 물통 일수록 시간과 노력을 던다.

7. 사양 프로그램

첫모이는 부화장에서 깨어 나온지 24시간만 지나면 어느때 먹여도 좋다. 24시간 이후 사료를 빨리 먹일수록 초생추가 더욱 일찍 성장을 개시하는 것을 돕는다.

첫날만은 각 모이통 사이에 신문지를 깔고 그위에 하루 4-5회 모이를 뿌려준다. 이것은 사료가 무엇인지를 알게하고, 사료 섭취량을 늘리는 역할을 한다. 그날 저녁에 신문지를 걷는다.

이제 일면 병아리도 사료가 무엇인지를 알고 모이통으로 달려간다.

사료는 항상 충분히 공급한다. 그러나 모이통의 4분의 3을 넘지 않는다.

흘러지는 사료는 낭비도 되지만 뒤에 병아리가 먹으면 오염의 원인이 된다. 넘치게 주는 것 보다는 모이통 숫자를 늘리는 것이 현명하다.

형태가 다른 모이그릇이나 물그릇으로 바꾸고자 할때는 2가지를 병용 하면서 서서히 바꾼다.

사료는 자주 저어주고, 모이통과 물통은 매일 닦아준다.

8. 초생추 사료는 6-7주령에서 증추용으로 약 10일간에 걸쳐서 서서히 변경한다. 대추 사료는 12주령부터 18주령까지 먹인다. 초생추부터 가루 모이를 주기도 하나 처음 1주간은 물에 개어주는 것이 좋다. 4주 이후부터는 곡식 분쇄한것을 주어도 된다.

탈수증(脫水症)을 예방한다

9. 병아리 체내(體內)의 각 기관의 물이 부족해지는 증상을 탈수증이라 하는데, 초생추때에 탈수증에 걸리는 병아리는 1-5%나 되며, 이러한 병아리는 3일령 이후부터 폐사가 나오며 성계가 되어서는 자라지 못하고 체구가 작은 것을 볼 수 있다. 탈수증이 생기는 원인은 본래 일면 병아리가 물을 먹을줄을 몰라서 생기는 경우가 가장 많다. 물을 먹을줄 모르는 병아리는 잘 관찰하여 물그릇에 주둥이를 담귀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병아리를 육추기에 넣을때 모두 물통에 주둥이를 담귀넣어 물을 알게 해준다.

1주령까지는 습도를 70%정도 공급한다

10. 겨울 병아리를 기를때는 계사보온(保溫)에 힘쓴 나머지 환기를 충분히 못하게 되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면 계사내에 습도가 많아져 바닥에 대단히 습해지고 만성 콧수름 등 소화기 질병이 많아진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경우는 대개 2주일 이후에 일어나는 문제이고 초생부터 약 10주령까지는 오히려 습도가 모자라서 병아리가 충분한 발육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겨울 건조기에 육추할때는 습도를 충분히 공급하도록 한다.

습도가 모자라면 병아리는 난황소화가 안되고 다리가 가늘어지며 목이말라 물을 많이 먹게되어 설사를 하게되며 이설사가 항문 주위에 말라붙어 항문을 막히게하여 병아리를 폐사 시키는 결과가 된다.

“병아리도 울타리를”

11. 육추기 주위에 울타리를 (칙가드) 쳐주므로서

1. 병아리가 물러거나 길을잃고 방황하는것을 방지하고
2. 병아리의 활동 범위를 좁게하여 모이통과 물 그릇을 보다 쉽게 발견할 수 있게하고
3. 추운 겨울에는 울타리속에 있는 병아리들을 훈훈하게 해준다.

첫날은 샷갓에서 2-3자 거리에 울타리를 설치하고 그후부터 점차로 거리를 늘려가다가 7일 후에 철거한다.

울타리는 대개 베니아판이나 두꺼운 종이로 만들고 여름철에는 철망으로 만든다.

“자리깃은 질병을 예방“

12. 계사 바닥에는 깨끗한 짚을 약 5cm길이로 잘라 5cm두께로 깔아준다.

자리깃은 똥과 습기를 흡수하며 땅 바닥에 단열(斷熱) 작용을 한다.

과학자들은 특히 콧수름과 같은 질병을 예방하는데 자리깃을 대단히 권장하고 있다.

육추용으로 사용했던것은 다시 사용 할수 없고 곰팡이나 세균이 번식되지 않았고 병아리에 상처를 주지않는 물질을 택하여야 한다. 자리깃은 매주 헤쳐주고 새로운 자리깃을보충 한다.

중도에 자리깃이 너무 습(溫)해지거나 특별한 점염병이 발생하지 않는한 약 5주령까지 갈

아내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다.

환기(換氣)는 철저

13. 계사내의 세균의 번식을 억제하고 계사 바닥을 깨끗이 유지하려면, 암모니아가스에 의한 병아리의 호흡기 손상을 막으려면, 그리고 병아리를 편안한 환경에서 행복하게 키우려면, 환기는 필수적인 작업이 되어야 한다.

점등을 꼭 해야한다.

14. 겨울 병아리가 일반적으로 소구(小軀) 조산(早産)을 하여 소란(小卵) 탈항(脫肛)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 가장 큰 원인은 해의 길이(日照時間)가 점점 길어져가는 2월-5월 사이에 중추대추기를 지나므로 성성숙이 너무 빨리 촉진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겨울 병아리를 기르는 양계가는 자연 일조 아래서 병아리를 기르지 말고 병아리때부터 다음과 같은 인공점등을 해주어야 한다.

0-2주령- 계사면적 5평당(平當) 30와트 전구 1개 24시간 주야점등

3-20주령- 계사면적 5평당 15와트 전등 1개 20주령시의 자연일조 1시간을 향하여 점감점등(漸減點燈)

12월 1일 부화된 병아리의 점감법을 예를들면

1. 2주령이 되는 12월 14일까지는 24시간 종야 점등 한다.
2. 4월 19일의 자연일조 시간이 13시20분이라는 것을 알아낸다.
3. 다음 24시간(1440분)과 13시간20분(800분)의 시차를 17주령으로 나눈다

$$1,440분 - 800분 = 640분$$

$$640분 - 17주 = 37분$$

즉 3주령부터는 24시간에 내주 37분씩 줄여서 점감점등(漸減點燈)을 해나가면 20주령 초에는 자연일조 시간과 일치하게 된다.

15. 초생추사에서 중추사로 이동할 경우와 같이 갑자기 환경이 변하면 계군 속에 불안과 건강이 생겨 압사하는 답이 나온다. 이러한 경우 1일24시간 점등을 2~3일 계속해주면 압사 방지에 많은 도움이 된다.

16. 샷갓 육추를 할 경우에는 샷갓안에 5와트 짜리 전구를 달아 병아리를 열원(熱源) 주변으로 유도한다.